

2025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육 전년 대비 양호

◆ 호남지역 양파 생육 전년 대비 양호

- 대부분의 양파 주산지 생육 여건 호조로 작황 양호
- 경남은 타 지역 대비 생육 지연
- 일부 지역 노균병 발생했으나 생육 피해 미미

2025년산 마늘 생육 전년 대비 양호

◆ 충북·경북지역 마늘 생육 지표 전년 대비 높음

- 일부 지역 잎마름병 발생했으나 기상 여건 호조로 전년 대비 생육 양호

2025년산 중만생종 양파·한지형 마늘 실측 결과

| 구분 | | 구직경(mm) | | | 구중(g) | | |
|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25년산 | 24년산 | 평년 | 25년산 | 24년산 | 평년 |
| 마늘 | 충북 | 40.8 | 43.3 | 42.9 | 36.4 | 35.4 | 37.2 |
| | 경북 | 37.8 | 37.7 | 44.8 | 37.7 | 31.2 | 47.1 |
| 양파 | 충남 | 84.0 | 81.0 | 76.7 | 293.6 | 279.6 | 250.0 |
| | 전북 | 84.8 | 77.1 | 77.2 | 299.1 | 248.9 | 246.8 |
| | 전남 | 84.2 | 74.1 | 74.5 | 311.2 | 227.7 | 223.5 |
| | 경북 | 77.3 | 76.3 | 76.8 | 253.5 | 241.9 | 241.0 |
| | 경남 | 82.7 | 86.1 | 77.6 | 283.3 | 338.8 | 257.3 |

주1: 2025년산은 5월 28일~6월 4일 평균이며, 2024년산은 5월 30일~6월 3일 평균, 평년은 20년~24년 10차 조사의 최소·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임.

주2: 생육지표는 전년과 평년 생육의 분포를 토대로 낮음, 비슷, 높음으로 지표화하여 산정

자료: KREI 농업관측센터

단양군(06.04.)-마늘



의성군(06.04.)-마늘



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6월호 전망치보다 감소 예상

- ◆ 최대 주산지인 호남지역은 초반 생육이 부진하였으나, 3월 중순 이후 회복. 4~5월에는 주기적인 강우와 생육 적온 형성으로 구 비대가 매우 원활.
- ◆ 경남지역의 10차 생육 실측조사 결과, 구직경과 구중이 전년 대비 각각 4%, 16% 감소
 - 경남지역 모니터 조사 결과, 지상부 생육 양호하여 단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수확 후 구 크기가 예상보다 작음. 전년 대비 대과비중 줄고, 중·소과비중 증가
- ◆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만생종 수확이 시작되어 실제 수확 결과를 반영할 경우 중만생종 양파 최종 생산량은 6월호 전망치(108만 9천 톤, 전년비 3% 증가)대비 감소할 가능성 높음

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

- ◆ 정부는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(5.26.) 발표
 - 수매비축 등(30천 톤), 자조금단체 활용 저품위 상품 출하 억제(4천 톤) 등 과잉 물량 전량 해소, 중생종 양파 출하 연기(3천 톤)
 - 할인지원, 외식·식자재 업계 국산 양파 대체 유도 등 추가 수요 창출, 수출 지원 등
 - 6월 4일에 추가로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 물량 2천 톤 추가 증량

당초 전망보다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 폭이 줄어들고, 정부 수급 대책 영향으로 6월 중순부터 도매가격 반등할 것으로 예상

함평군(05.29.)-양파



서산시(05.29.)-양파

